



Philippines pangasinan

2015/01/13 09:48

‘다문화’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다.

찬수. 수정.
준성. 지원

다문화란 무엇일까?



박찬수26(라운아띠 노동자)

그냥 **외국사람**들 아니야???

외국인 **노동자**들 가족들 인가?

'다문화'에 대한 제대로된 가치관과 개념조차 잘 모르고 있던 수영 선수 출신과 천안출신 촌 것...무식무식

저는여...어렸을때 **수영**을 해서 잘 모르겠어요

불쌍한 사람들인거 같아여 (으영 농물)



채지원(22) 수영 중독자



다문화 알아볼까? >_<

임수정23(천재 화학자)



좋아 ♥ 좋아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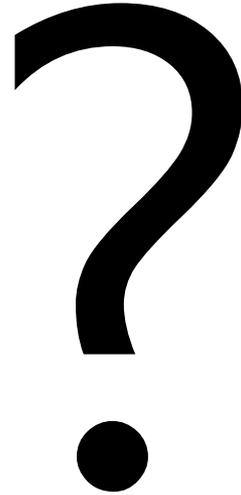
(난 지금 피곤하니깐 그냥 아무렇게나 해줬으면 좋겠어..)



권준성 25(무직, 비판론자)

일단 배고프니까~~~~밥밥밥





서로 다른 다문화기관에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승리다문화교회 (승리다문화비전센터)

각자의 문화가 **공존**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



간단하게 교회를 둘러본 후 다문화 카페에서 커피를 사먹었습니다. 텀블러를 쓰는 모습이 보기 좋죠?



카페 수익금 일부와 모금을 통해서 캄보디아 친구의 수술비를 도와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이야기

김승일 목사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문화는 인간이 창조하였다.

결국 '다문화'란 그 사람을
존중하는데 에서 시작한다.

그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이루어 주체 의식
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스스로 자신의 삶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리 다문화 교회에서 '다문화'이기 때문에 존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곳

우리가 만난 사람이야기

원숙 센터장님

문화에서 '다'를 붙여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다른 것도 다른 문화이다.

너와 내가 **다른** 것도 다문화이다.

그들과 나누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것

다문화 가족을 무조건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퍼주기 식의 지원이 아닌 어느 정도의 **소득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정책의 부족함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파주 EXODUS

이주민에게 평화바람을
전하는 '옆집 이웃'

우리가 만난 사람이야기

데레사 선생님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문화를 돌아볼 시간이 없지 않은가?

도와주려 하는 태도보다 **옆집이웃**처럼
편안한 관계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 일수 **있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뛰어
날 수 있다.

인류보편적 가치로써 **의료와 교육**은 보장
받아야 하지 않을까.

다문화를 옆집이웃처럼 인정하고 바라보는 태도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결론 내린 '다문화'란?

결국 같은 **사람**이라는 것

다문화라고 구별하지 않고 그들도 결국 우리와 **함께 사는 옆집이웃**,
즉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문화를 바라보는 첫 걸음이 아닐까.



자발적 불편



2015

2015/01/13 15:44

아띠들의 느낀점

준성 :

처음에는 '다문화'가 나와 상관 없는 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 했다. 하지만 기관 방문 후 '다문화'에 대한 개념이 달라 졌고, 내 옆에 있는 조원들의 장점 및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보였다. 각자의 문화가 보이자 더욱더 조원들을 존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찬수 :

다문화는 우리가 배려해야 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들은 옆집에 사는 이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문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돌아봐야 할 것 같다.

아띠들의 느낀점

지원 :

다문화라는 말의 표현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단순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문화를 만나는 것이라라고 생각을 했다. 다문화기관 방문 후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부터 우리부터 각자의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자 라고 생각을 했다.

수정 :

다문화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세 군데의 기관에서 서로 조금씩 다문화에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에 같이 함께 지내는 이웃으로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 불편함을 조금 도와 줄 수 있는 정도의 동정이 아닌 관심으로 바라봐야겠다.

